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인 W.Churchman교수는 일찍이 인간에게서 지식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그 까닭은 점점 고도화 되어 가는 산업의 분업화가 인간을 지나치게 기능화 하고 개인주의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비인간적 사회를 염려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교의 기본정신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데 있으며 이는 곧 윤리관으로

바로 국민들이 신속하게 정신개조를 이루지 못하고 구성원 사이에 많은 정신적인 갈등만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오랜 전통적 가치관에서 냉혹한 서구의 합리주의의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0년의 빠른 시일 내에 산업사회로 성장했고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여타 공업선진국과 같이 농업생산의 저축으로 공업자본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외국 자본의 차관에 의하여 산업자본을 형성한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이후(소득 약 7천달러 수준)에는 대단히 높은 소비성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인력자본(human capital) 형성 또한 비슷한 방법을 썼다. 국내 교육관의 육성에 의한 인력 양성보다는 외국의 좋은 대학에 우수 학생을 보내어 단시간 안에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산업에 투입한 점이다. 따라서 재수입한 고급 인력은 국내 산업의 후진성 때문에 적응하는데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따라서 앞선 기술로 토착화하는 데 있어서 큰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합리주의 가치관의 기본은 물질주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주의 가치관에 기본을 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행동원칙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는 냉혹한 이성에 의하여 개인의 행동원칙이 이루어지며 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감정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침으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확성이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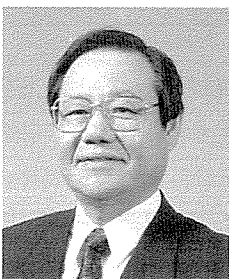
## 지식 이전에 인간 도덕성 갖춰야 정직 · 근면 · 신뢰성 바탕 협력 필요

고도산업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그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술자는 자긍심을 갖고 현실에 참여해야 하며 협력하는 사회의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협력의 기초는 정직성과 근면성 그리고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에게 주어진 목표가 소중하고, 수단을 간구한 다해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물질적인 충족이나 쾌락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도 인간으로써의 도리에 맞지 않으면 행해서 안된다는 행동 규범을 으뜸으로 삼았다.

### 국민정신 사회발전속도 못 따라

〈한국의 산업성장과 전문가 역할〉 첫째,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에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성장하였으며 금세기 말에 고도산업사회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가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한계의 문제는



黃鏞周  
(중앙대 건설대학원 교수)

어져 구성된 상호간에 신뢰성이 낮아 협력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난 6백여년간 유교사상에 의하여 사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서구의 산업사회 가치관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교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한 사회조직의 틀이며 문화적 바탕인 연공서열제(年功序列制)와 직능적 위계사상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관은 서구 산업사회의 틀인 직업의 기능성과 시장성에 의하여 부여되는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수용하지 못한 과제이다. 특히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급속하게 사회구조가 개편되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은 더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파행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 구성원 정신적 공동체의식 중요

〈도시화와 전문가 윤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급격한 도시성장을 했으며 이제 전국이 도시사회화 되었다. 도시사회의 특징은 시민사회로 시민 모두가 전문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사회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차이는 도시가 다양한 직종으로 분업화 되며 고도의 협업을 전제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후자의 사회 구성은 아주 적은 직종의 분업으로 이루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직종과 직능 사이에 고도의 기능적 연계체제로 시스템화 한 것이 현대 도시의 구조적 특성이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그 사회의 물질적인 성장에 앞서 구성원의 정신적인 공동체의식이 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협력의 기틀은 개개인의 사회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며 행동원칙을 지킴으로써 상호협력의

기초가 된다. 그리하여 그 지역사회는 고도의 문명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도시인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활동들이 마찰없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생활의 리듬의 창조는 바로 그 시대 시민문화를 나타내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사고의 틀과 행동의 규범은 바로 도시의 조형예술 즉 건축공간, 녹색공간, 활동을 지탱하는 지원 시설공간 등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도시환경은 바로 어제를 산 우리의 족적이요, 오늘의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는 내일의 도시상(urban image)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역사창조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도시성장, 산업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다르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또한 지극히 한국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요에 비하여 대단히 부족했던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인력(professional, scientist, engineer, technician)은 자연히 우대를 받게 되지만 사회조직의 틀은 사농공상의 위계에 따르게 되어 산업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산업인력보다는 관료화된 행정인력에 의하여 주도되므로 사회발전을 유도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발전의 에너지 공급이 비효율화하여 점차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 자긍심 갖고 사회 적극 참여해야

〈엘리트의 역할〉 분업사회의 성립 전제는 협업이다. 구성원의 인권이나 자유는

구성체의 일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조직론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분업화 즉 고도의 전문화, 계열화는 협업을 통하여 결과를 생산할 수 있어 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조직을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중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스스로의 협업을 등한시 하고 전문지식 그 자체에 매달려 파트너의 존재나 협의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으로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 성행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분명한 것은 조직이 분열화하여 여러 전문가의 지식이 팀워크로만이 다룰 수 있는 오늘날의 사회운영에서 충돌을 일으켜 불안만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어 경제적, 사회적 바탕을 흔들여 버린다.

따라서 고도 산업사회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그 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는 자긍심을 갖고 현실사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력하는 사회의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협력의 기초는 정직성과 근면성 그리고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 신뢰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즉, 어느 한 전문가의 힘만으로는 무슨 일을 끝낼 수 없는 공동체 사회이다. 직능간, 업종간에 계열별로 분업을 하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발휘하여 책임을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만이 팀워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날도 새로운 도시사회를 구성하는 전문인력들의 사회적 역할에 달려있고 이 도시문화의 창조는 전문가집단의 능동적인 참여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⑤7